

# 옛 명성 잃은 양림동...남구, 관광육성 사업 '외면'

이장우 가옥 등 무인계측기 설치 1년 넘도록 '먹통' 상태로 방치 관광 니즈·예산·정책 활용 못해 "미온적 행정 의문...개선 촉구"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 지역 주요 관광지가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 방치되면서 외부 관광객과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문객 집계를 포함해 관련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무인계측기는 1년이 넘

도록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등 관광사업 육성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30일 남구에 따르면 팽권마을과 근현대건축물 등 남구 주요 관광지가 위치해 있는 양림동 일대는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감소와 폐업 점포 증가로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양림동 일반음식점 폐업 점포는 연도별로 ▲2018년 8곳 ▲2019년 9곳 ▲2020년 15곳 ▲2021년 12곳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양림동 내 근대건축물 등을 둘러보는 건축·선교투어 방문객수 또한 ▲2019년 1,861명 ▲2020년 168명 ▲2021년 308명으로 급감했다. 양림동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의

방문이 줄고 폐업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며 "양림동을 재방문하도록 만드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코로나19 이후로도 좀처럼 유동인구가 늘어나질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남구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도 구청은 일부 관광지에 설치한 무인계측기를 1년 이상 먹통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무인계측기는 관광지 등에 무인계측기 전용카메라를 설치해 오가는 차량 및 방문객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남구는 지난 2015년부터 객관적인 방문객 수치 집계가 어려운 관광지 5개소에 1,645만원을 소요해 무인계측기 8대를 설치했다. 현재 남구에는 이장우가옥, 빚고을공예창작촌, 팽권마을(4대), 광주김치타운, 농촌테마공

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장우 가옥(2021년 5월-2022년 6월), 빚고을공예창작촌(2021년 7월-2022년 6월), 팽권마을(2021년 10월-2022년 6월) 등 3곳은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돼 이 기간 방문자 통계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각 지자체들은 무인계측기와 관광지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수요조사를 활용해 관광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 이를 활용해 동명동 카페거리가 코로나19 이후로도 10대~30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했다는 자료를 토대로 지난 7월 관광안내센터인 '여행자의 집'을 개관해 관광객을 더욱 끌어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는 무인계측기를 통한 방문객 집계는 커녕 관광객 수요에 따른 정책도 수립하지

못한 채 관광사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순 남구의회원은 "타 지자체들은 지역 관광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남구는 미온적 행정에 의문이 든다"며 "당장 기존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관리 구조의 전환으로 양림동뿐 아니라 광주 관광이 한 걸음 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무인계측기 사업은 광주시가 주관하고 있어 업체 선정, 예산 편성 등으로 보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무인계측기 보수·관리 과정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 사업 계약 등을 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무인계측기 등 수요조사를 적극 활용해 관광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심폐소생술 교육.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심폐소생술(CPR) 체험형 교육에 참가한 공직자들이 북부소방서 교육 관계자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김태무 기자

## 검찰, 곡성 산사태 책임자들 2년만 기소

설계·감리·공무원 등 8명

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26분께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하는 산사태가 발생,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들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빗물이 흘러들거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옹벽 관리·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설계사는 비탈면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사면 안정성과 도로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 이후 시공사 측이 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바꿨으나 사면 안정성을 검토하지도, 원 설계자에게 자문하지도 않았다. 2020년 6월 옹벽 준공검사를 할 때도 구조계산서, 검토의견서 등이 빠져 있어 감리자들과 전남도 공무원은 마치 6일 뒤 처음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공문서를 작성했다. 사고 발생 2년 3개월이 지나야 기소가 이뤄진 데 대해 검찰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감정을 요청하고 정기인사로 담당 검사들이 교체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최환준 기자

## 광주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 위반 209건 적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 위반한 231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304개를 대상으로 '2022년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4차례 실시했다. 점검 결과 231개 사업장에서 4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209건(50%), 임금명세서 미교부 134건(32%), 임금체불 61건, 최저임금 미준수

7건 등이다. 위반 사항의 50%를 차지하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나 필수 항목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중 휴게시간, 휴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으며, 사업주개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찬기 기자

## 광주·전남 주말까지 '강추위'

광주·전남지역은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하1도, 낮 최고기온은 3-7도이며, 새벽 6시부터 전남 서해

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5mm 내외, 예상 적설량은 1-3cm이다. 주말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4일 오전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7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 분포를 보이겠다. /김혜란 기자

###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기업

**현대로오텍(주)**

**현대이엔티(주)**

생산 및 품질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고품질, 고효율, 유지보수**에 편리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b>생산품</b> 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	<b>태양광EPC</b> 태양광시공 및 분양, ESS, 전기공사, 유지보수
<b>현대일렉트릭 특약점</b> 비상발전기, 변압기, 모터, 차단기, 태양광PCS	<b>변전소네티킹공사</b> 154/345kV S/S 공급 시공, 시스템설계, PM

■ 154kV 해남변전소	■ 태양광발전소-PV+ESS	■ 건물 지붕 태양광
■ 월드변압기	■ 배전반	■ 주변전선 배전반

**대표이사 노정규**  
C.P 010-3573-1323  
Homepage <http://rotech.kr>  
E-mail [rotech@rotech.kr](mailto:rotech@rotech.kr)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340 (연제동) 현대로오텍(주)  
TEL : (062) 972-4491 FAX : (062) 972-8863  
목포공장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불3길 14 (난전리) 현대이엔티(주)